

제5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개최



한일 양국 경제협회는 한일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한일 고교생교류캠프(경제경영체험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4박5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5회 캠프에 심사위원으로 다녀온 우리협회 허남정(許南整) 전무이

사는 “이번에는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 15명 등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47명을 구성하였으며, 일본학생들과 어울려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공동구상 발표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4박5일간 일본고교생들과 먹고 자는 캠프활동을 통해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일관계의 미래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본 사업이 향후 10년, 20년 계속되는 풀뿌리 교류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고 전하였습니다.

본 캠프는 2002년 한일양국의 월드컵공동개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과 일본의 친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의 교류를 통해 젊은 세대들간의 연대감을 형성시키며 한일 양국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6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국 참가학교 현황 : 7Page 참조>

신임 주한일본대사 취임, 조석래 회장과 오찬가져

신임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에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郎) 대사가 7월 15일자로 임명되어 8월에 부임하였습니다. 오시마 대사는 외무성 경제국장과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차관보)으로 근무했으며, 주제네바 국제기관 일본정부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6일(화) 12:00 롯데호텔에서 오시마 대사와 조석래(趙錫來)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만나 오찬을 하며 한일 양국간의 협력과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우리나라의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와 일본 호쿠리쿠(北陸:新潟縣, 富山縣, 石川縣, 福井縣)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방안을 논의하는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한일 양국 정부·자치단체·경제단체·기업 등 1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화)~22일(금)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호텔현대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민관합동회의에서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는 양측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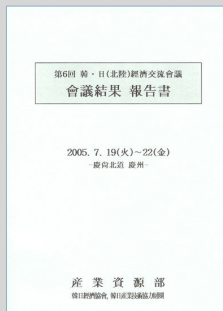
<건배제의하는 허남정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본 회의에서는 환동해권 8개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교류, 공동조사연구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3개 분야 23개 사항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기업·자치단체간 교류 촉진, 항공노선 등의 활성화 및 관광교류 협력, 산업기술미션 파견, 청소년 교류, 산업기술집적지간 교류,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환동해권 경제교류를 한층 활발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7회 회의는 일본 후쿠이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교류 상담회에서는 한국측에서 24개사 그리고 일본측에서 13개사가 참석하여 개별 기업간 상담을 통해 수출·합작·기술제휴 등 35건 33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문의 : 사무국 조덕묘 차장
02-3014-9855>



<기업교류 상담회 모습>

日本은 지금...

日本, 上昇의 30年 스타트(1)

公文 俊平 (KUMON Shumpei)

多摩대학(Tama University) 정보사회학 연구소장

<智民이 될 수 있을까?>

일본 경제는 현재 일시적 정체 상태에 멈춰서 있다고 여겨진다. 불량채권 처리는 상당히 진행되었고, 구조개혁도 최종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日經平均株價도 10,000엔대를 회복한지 오래다. 보너스도 증가하고, 대출 신입사원 채용도 늘었다. 그렇다고 드러내 놓고 <景氣 回復> 선언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의 장마처럼 장마가 끝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로 우물쭈물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재차 상승기로 향하기 위하여 견인역 찾기도 활발하다. 액정 TV일까? 아니면 자동차일까? 개인소비도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경기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닌가?

제2의 패전이라고까지 하는 <버블 붕괴>와 외자의 압도적인 침투, 거기에 중국 제조업의 압박... 이제는 일본 경제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비관론이 우리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비관론과는 무관하게 IT벤처의 젊은 경영자들이 가뿐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이 특집을 읽으시게 되면 이전의 일본 경제를 세계 NO.1으로 한 일본 제품의 독창성과 고품질, 그것을 지탱한 근면함과 높은 모럴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장점이 미래에 있어서도 타국의 추적을 허용치 않는 우위성이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인이여! 자신을 가져라. 경기 회복의

모든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일본 경제는 재차 상승의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군사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정보화>의 시대에 돌입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인도, 중국 등 각국은 그 새로운 국면을 향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와중에 일본은 정보화 사회의 최첨단 국가로서 새로운 상승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보사회학의 제1인자인 쿠몬 쉼페이(公文 俊平)씨가 다수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기초로 <일본 상승 30년>을 예언한다.

<정보화의 파도와 智의 게임>

모든 사회변화의 과정은 <出現>, <突破>, <成熟>이라고 하는 3개의 국면으로부터 형성,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S자형 물결(파도)을 그린다. 그 S자 물결은 서로 일부가 중복하는 보다 작은 S자 물결로 분해할 수 있다. 즉, 큰 사회변화는 작은 사회변화의 集積이고 먼저 일어난 변화의 성숙국면과 후에 일어난 변화의 출현국면과 겹치고 있다.

내가 주창하는 이 개념 모델을 사용하면 근대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 현재 근대화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가? 향후 어떠한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앨빈 토플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제3의 물결(1980)>에서 인류의 역사를 기술혁명의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

이후의 <농업사회>, 제2의 물결인 공업혁명 이후의 <근대화 사회>, 그리고 제3의 물결이 야기하는 근대사회 이후의 사회로 나눈다.

그러나 나는 향후 출현하는 새로운 사회도 근대를 초월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근대의 틀 안에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진보주의(소중한 것은 신이 아닌 인간이고, 인간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진보한다)와 같은 근대의 가치관은 쉽게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와중에서는 <군사화>, <산업화>, <정보화>라고 하는 3개의 사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제각각의 안에서 보다 작은 몇 개인가의 물결이 일어난다.

근대화의 제1의 물결, <軍事化>가出現한 것은 16세기 중반(절대주의적 주권국가의 탄생), 突破(Brake)한 것은 17세기 중반(입헌제의 대두), 成熟한 것은 18세기 중반(민주제로의 이행)이다. 이 군사화 국면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플레이어(Player)가 국제사회라고 하는 무대에서 군사력을 행사하여 전쟁을, 또는 그것을 배경으로 한 외교를 행사하여 領土, 領民을 서로 쟁탈하는 <威의 게임>을 전개해 왔다.

제2의 물결, <産業化>는 18세기 중반에出現하여(제1차 산업혁명), 19세기 중반에 突破하여 20세기 후반 이후 成熟期를 맞이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국제 시장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경제력을 행사하여 富를 획득하는 <富의 게임>을 전개해 왔다.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기계와 타인에게 시킨다. 즉 기계화, 서비스화이다. 그 기계화, 서비스화는 제1차 산업혁명(1750년-)에서는 생산 분야에, 제2차 산업혁명(1850년-)에서는 소비 분야에, 그리고 제3의 산업혁명(1950년-)에서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 등)로 확대해 왔다.

제3의 물결, <情報化>는 20세기 중반 이후 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정보에 있어 플레이어는 <네티즌(Netizen=Net citizen)>, 저의 표현을 사용하면 <智民>이다. <智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인터넷을 주요한 인프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에 갇혀져 <智業>, 즉 지식과 정보의 창조, 공유에 관계하는 사람들 이라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NGO, NPO, 자원봉사자 등 형태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그들은 知力(타인을 설득하고 유도하는 힘)을 구사하여 자신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답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급시키는 <智의 게임>을 <地球智場>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행하고 있다.

현재, 그 知力은 환경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 등 정치적, 윤리적 과제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많지만, 앞으로는 보다 순수하게 知的인 놀이(예술, 대중문화, 스포츠 등)로 향하여지는 게임이 증가한다.

그 활동에 있어서는 군사화에 있어 <鬪爭>과 산업화에 있어 <競爭>과는 다른 <공동>(Collaboration/협력)의 원리가 작용한다. 또한 부수적, 결과적으로 富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통상 <情報化>라고 하는 단어는 산업화의 성숙이 근대화의 다음 사회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많지만,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情報化>는 그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미이고, 산업화에 의해 사람이 <市民化>한 것처럼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사람은 <智民化>해 간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근대화 사회의 성숙 과정이다.

<일본, 제3의 상생국면 도래>

이상은 유럽을 중심으로 본 근대화의 과정이다. 한편 일본은 …<계속하여 다음호에 (2)편이 이어집니다.>

<자료출처 : SAPIO 2005. 7>

長壽 企業으로 가는 길

<永續적인 企業 發展이아말로 經營者의 理念>

3세기에 걸쳐 존속 하여, 현재 더욱 번영하고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찾아 보아도 의외로 적다.

그 적은 수의 예가 제너럴 일렉트릭(GE)이다. 토마스 에지슨을 포함하여 13번째의 리더에 해당하는 제프리 이멜토 회장은 2004년도에 16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내었다. 년차 보고에는 GE가 영국 신문 조사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 부문에서 7년 연속首位에 선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GE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고, 수많은 시련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經營層의 幹部가 内部 登用이고, 創立 以來 時代의 急激한 變化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組織과 制度를 大膽하게 改革해 온 歷史이다>.

경영 조직은 당초의 중앙집권관리로부터 第2次大戰 後에 사업부제라고 하는 분권관리로 전환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는 전략사업 조직과 Product Portfolio 관리 체제를 확립했다.

1981년에 등장한 잭 웰치 前회장 이후에는 계속하여 대담한 사업 구조조정과 신규 성장 사업으로의 과감한 진출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글로벌화와 IT(정보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社風과 가치관의 一新을 도모했다. 백여개국, 30만명 이상의 사원의 의식을 바꿔 가치의 공유화를 도모한 <업무 워크아웃(점검·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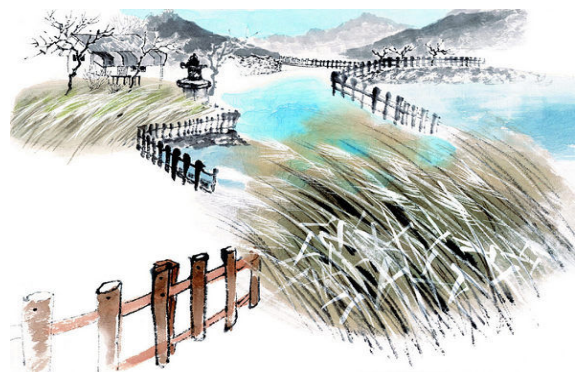
해결) 운동>과 인재의 육성프로그램을 확장·강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영 톱에 의한 간부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의 필요성은 점차 미국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넓게 퍼졌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紙의 조사에 의하면 포춘社의 매출액 톱1,000개사 중 70%의 기업이 계속적인 후계자 육성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은 과연 어떨까?

하지만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보험업계에 군림해 온 AIG의 모리스 그린버그 前회장 겸 최고 경영책임자의 스캔들이 보도되어지고 있고, 기업통치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대야 말로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이 새로운 경영자의 이념>인 것이다. 이를 위해 지혜와 윤리를 제도화 하고, 진정한 기업 가치를 향상 시키는 것이 현대 경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5. 7>



會員 動靜 & 短信

■ **(주)효성**이 7월 21일 대우정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효성은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 소재 산업의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효성 이상운 사장은 “국내 완성차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자동차 소재·부품 산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우정밀을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과거 어려운 기업(한영중공업, 한국타이어 등)을 인수해 성공적인 회사로 turnaround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정밀을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7월 19일(화),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호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지난 5월, 타계한 고 박성용 이사장의 뒤를 이어 제4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박삼구 부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그룹의 경영철학인 사회공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임 이사장들께서 쌓아 올린 금호아시아나의 소중한 전통과 가치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은 8월 1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하루에 2회로 증편한다고 밝혔다.

■ **포스코**와 NSC(신일본제철·사장 미우라 아키오)의 전략적 제휴가 최소 5년간 더 연장된다. 두 회사는 2000년 8월부터 시작한 전략적 제휴기간 연구개발, 기술교류, 원료구매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최소 5년간 이 전략적 제휴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포스코와 NSC는 주식 상호 보유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부사장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경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각 부문에서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 활동을 펼쳐 왔다.



■ 그 동안 결식아동 지원과 문화 소외층에 대한 객석 나누기 운동, 푸드뱅크 등 꾸준히 그룹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CJ**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CJ 나눔재단’을 설립한다. 우리 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름 붙여진 ‘CJ 나눔재단’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이재현 회장 개인과 CJ(주), CJ홈쇼핑 등 CJ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총 100억원을 단계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며, 향후 불우이웃의 결식해결과 빈곤 아동들의 교육 지원, 그리고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나눔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알림> 한일경제협회 소식지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기사(회원·회원사 동정, 칼럼 등)가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02-3014-9877)

- 금번에 아래 기업이 우리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세아베스틸■

<http://www.seahbesteel.co.kr>

대표자 : 이승휘 대표이사

Tel.02-818-2001 Fax.02-864-8698

■창원특수강(주)■

<http://www.cssteel.co.kr>

대표자 : 김정원 대표이사

Tel.055-269-6114 Fax.055-269-6900

■SAMCO CO.,LTD.■

<http://www.samco.co.kr>

대표자 : 최영철 대표이사

Tel.053-593-3807 Fax.053-593-3808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 제5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양국 참가학교 현황 ♠

한 국 측

No	학 교 명	男	女	합계
1	경기여자고등학교		1	1
2	과천외국어고등학교		1	1
3	광주대광여자고등학교		1	1
4	강원고등학교		4	4
5	대구경원고등학교	1		1
6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		1	1
7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	1	2
8	대일외국어고등학교		1	1
9	민족사관고등학교	5	10	15
10	상계고등학교	1		1
11	수락고등학교		2	2
12	안양외국어고등학교	1		1
13	양정고등학교	1		1
14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1	1
15	중동고등학교	1		1
16	청원고등학교	1		1
17	포항여자고등학교		1	1
18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	4	4	8
19	Lawrenceville School	1		1
20	Madeira School		1	1
21	Westminster School		1	1
한국측 참가인수		17	30	47

일 본 측

No	학 교 명	男	女	합계
1	慶応義塾高等学校	1		1
2	慶応義塾女子高等学校		3	3
3	慶応義塾湘南藤沢高等部	2	2	4
4	慶応義塾志木高等学校	3		4
5	早稲田大学本庄高等学校	4		4
6	早稲田大学高等学校	9		9
7	青山学院高等部		1	1
8	立明館宇治高等学校		3	3
9	立明館慶祥高等学校		1	1
10	啓明学園高等学校		1	1
11	関東国際高等学校	4	1	5
12	順心女子学園高等学校		1	1
13	渋谷教育学園幕張高等学校		2	2
14	道立上野高等学校		1	1
15	加古川北高等学校		1	1
16	센토메리츠 인터내셔널 스쿨	2		2
17	King's College London	1		1
일본측 참가인수		27	17	44

📅 2005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0(목)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서울 (협회 회의실)
2	3(목)~5(토)	2005년도 오무따(大牟田) 산업미션 유치	서울
	4(금)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11(금)~15(화)	제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도쿄
	14(월)~18(금)	한일부품소재상당회 개최	오사카·큐슈
	15(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17(목)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25(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서울
	27(일)~3.5(토)	04경영관리연수	요코하마
4	14(목)~15(금)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서울 (신라호텔)
5	8(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송추C.C
	16(월)~19(목)	제4회 부품소재상호보완상당회&세미나 개최	도쿄
	23(월)~6.4(토)	05경영관리연수 1차	도쿄
6	9(목)~11(토)	아시아산업교류페어 파견	키타큐슈
	13(월)~17(금)	생산성향상 단기컨설팅	한국
	19(일)~7.2(토)	품질관리연수 파견	오오이소
7	10(일)~16(토)	한국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	일본
	11(월)~8.12(금)	지식산업 기술연수 국내어학연수	안산
	19(화)~22(금)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경주 (현대호텔)
8	6(토)~10(수)	제5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도쿄
	22(월)~11.12(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	일본
9	4(일)~16(금)	05경영관리연수 2차	도쿄
	26(월)~30(금)	한일산업기술촉진미션 파견	오사카 등
10	3(월)~7(금)	제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치바
	11(화)~14(금)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제천
	13(목)~14(금)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서울 (롯데호텔)
	26(수)~28(금)	제5회 부품소재상호보완상당회&세미나 개최	서울
		산업기술교류미션 수용	서울 등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11	21(월)~23(수)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교토
	28(월)~12.1(목)	제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대전
		키타큐슈·한국기술·업무제휴개척미션 방한	서울, 경기
12	4(일)~10(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수용	서울 등
	5(월)~19(월)	이공계대학생산업기술체험캠프 파견	도쿄 등
	6(화)~9(금)	제74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도쿄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유치	한국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도쿄·삿쵸로